

S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영향요인 연구*

구혜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S지역에서 사는 지역주민의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데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좀 더 종합적인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심도 있게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S지역(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2개월(2019년 2월-3월)동안 설문조사하고, 설문에 응답한 600명의 결과에 대해 회귀분석 통계방법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S지역주민의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공동체 의식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들과 하위요소와의 영향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는 구성원의식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고,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는 상호작용의식에도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반면 공익추구의식에서는 사회관계만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회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공동체 의식,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

* 성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 서론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경제적 성장과 물리적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핵가족화, 개인주의 문화 등으로 세대 간의 갈등은 2013년 28.1%, 2014년 28.7%, 2017년에는 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윤덕환 외, 2017). 세대 간의 갈등은 한 사회의 현재 성격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성격까지 형성하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유병래, 2015),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식 증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일체감, 동질감, 안정감, 연대의식 등의 공동체의식이 다양한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교통 및 통신, SNS의 발달로, '물리적인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 관계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되면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임정숙 김고은, 2019), 전체 응답자 84.5%는 공동체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반면 공동체의식은 감소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숙 김고은, 2019).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은 공동체의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공공문화규범을 따르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이 부각되면서 공동체의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동체의식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학습된다(김태진·홍혜

1) 2012년에 52.6%였던 것이 2013년에는 37.1%, 2014년에는 29.2%로 감소

영, 2018). 각 개인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는 점에서 공동체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부여되기도 하지만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다(김지영·이혜경, 2020).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어 공동체의식이 사회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장소인 동시에 지속적 삶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이라영, 2009). 김이수(2016)는 공동체의식은 삶의 질을 넘어 웰빙과 삶의 만족도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유라·노충래(2014)는 공동체의식이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최형임·문경영(2013)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허영주(2019)는 공동체의식은 한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는 데 중요하며, 성인이 된 이후 자연스럽게 시민의식 성숙과 사회활동참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지운·김유나(2016)는 자본주의가 갖는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체의식을 거론하였으며, 개인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신건강과 사회참여, 사회발달, 세대 간 갈등해소가 함께 증가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지인·이호현(2018)은 가정, 학교, 조직,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세대, 지역, 계층별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힘의 원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정계숙·박희경(2019)은 공동체의식이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축소하는 대인관계 관련 보호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동체의식은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게 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감을 촉진하며, 타인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

동에 참여와 행동을 유인하고 있다(김선숙·안재진,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은 국가와 사회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주동해·정원철, 2020).

이렇게 중요한 공동체의식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어진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특히 학교폭력, 따돌림, 중도탈락 등 각종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학교공동체 구현이 주요한 관심이었다(김선숙·안재진, 2016; 김혜진 2014). 또한 성별, 연령, 정치성향, 소득 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공동체의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검증에 초점을 두었다(안정임·최진호, 2020). 이와 같이 최근까지의 공동체의식 연구는 관계적 요인과 공동체의식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김지영·이혜경, 2020). 특히 고동우(2020)는 공동체의식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동체 하위요인들의 요인 명과 그 측정문항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연구 뿐만 아니라 국외연구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가나, 2008). 그러므로 그동안의 공동체의식 연구들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거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만을 반영한 연구들이거나, 영향요인들 중 하나를 영향요인으로 선택하여 단편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의 연구대상을 학교공동체의 아동이나 학생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확대하고,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도 인구사회적인 특성 중 그동안 자주 논의되지 않았던 사회적 관계적 요인 및 행동적 특성 등으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변수들은 기존의 영향요인에서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로 많이 사용되어 흔한 용어의 변수들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 영향요인들을 함께 확인하는 논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술연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심리내적인 특성을 갖는 사회관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행동적 특성을 갖는 사회활동참여 등을 영향변수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향상을 위해 주민들의 사회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공동체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공동체의식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체감, 상호의존성, 헌신을 지각하고 중시하는 상태를 의미하며(최영미, 2012), 지역공동체 조직체로서, 지역공간, 주민, 문화, 사회조직 및 협동생활 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나 신념, 물리적 공간, 외부의 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다(김수영 외, 2013).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자기결정권, 개체성을 존중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생활에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성이 존중되어야 한다(정영교, 2009). 높은 공동체 의식을 지닌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공동체와 구성원의 당면과제에 가까이 협력함으로써 적응력, 행복감, 만

족감, 삶의 만족도, 직무만족도를 높이며, 주관적 안녕감 등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계숙 박희경, 2019). 또한 임정숙 김고은(2019)도 공동체의식이란, 특정한 환경에 포함된 성원들이 상호작용으로 느끼는 연대감이나 소속감, 공동체발전의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에는, 우선 McMillan & Chavis(1986)을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 들 수 있는데, 그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구성원의식, 영향력, 욕구의 통합 및 성취, 정서적 연계의 공유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Hillery(1995)도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식과 집단의식을 나타내는 구성원의식으로 구분하였다. Bess 외(2002)는 개인을 초월한 감성적 상호작용의식과 소속감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Farrell 외(2004)는 공동체의식에 감정, 상호작용, 사회적 결속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Dalton 외(2007)도 조직, 집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인식하는 소속 구성원의식, 상호영향 의존성, 상호헌신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연구로, 김경준 김성수(1998)는 공동체의식을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충만감, 구성원 연대의식, 상호작용의 영향의식과 친밀성으로 구분하였다. 성희자 전보경(2006)은 대체로 구성원의식과 상호작용, 유대감을 포함한다고 하였고, 이라영(2009)은 귀속 구성원의식, 타인과의 유대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공익추구 참여의식, 정주성으로 설명하였다. 권정미·박태영(2014)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를 종합하면서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지역사회와의 일체감, 공동체 구성원과의 연대의식, 공동체의 공익추구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의식,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영향의식 등을 제시하였다. 김현주 외(2019)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식, 문제해결활동에 참여하는 공익추

구의식,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상호영향력,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공동체의식으로 설명하였다. 허영주(2019)는 구성원 소속의식,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유대로 정리하였고, 이남경 외(2020)는 구성원의식, 공동체에착, 정체성, 상호작용의식으로 정리하였다. 정성옥·장동헌(2020)은 공동체의식이란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겪는 것을 전제로 한, 집단과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집단의식, 사회의식으로 설명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감과 소속감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정서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집합의지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표로 종합하여 보면, <표 1>로 정리될 수 있다.

<표 1> 학자별 공동체의식 하위구성요소

학자명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	정주성
McMillan & Chavis(1986)	○	○	○	
Hillery(1995)	○	○		
Bess et al.(2002)	○	○		
김경준·김성수(1998)	○	○		
성희자·전보경(2006)	○	○		
이라영(2009)	○		○	○
권정미·박태영(2014)	○		○	
김현주·박현선·박희서(2019)	○	○	○	
허영주(2019)	○	○		
이남경 외(2020)	○	○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수로 활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인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을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구성원의식은 지역주민들의 소속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적 측면을, 상호작용의식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의사결정 및 영향력에 대한 인식적 측면을, 공익추구의식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규범준수에 대한 활동적 측면을 담고 있어 공동체의식 구성요소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구성원의식

구성원의식이란, McMillan & Chavis(1986)에 의하면, 일정한 조직의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정서적인 감정이나 소속감과 동일시, 공통의 상징체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특성은 누가 공동체 일원인지 아닌지를 느끼게 하는 의식을 만드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안정임·최진호(2020)는 구성원의식이란,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의미하며, 조직의 일원, 자긍심, 공유느낌, 역할수행의 인정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고은정 외(2006)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의식은, 소속된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동일시하는 감정,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친밀감,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연대의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성희자·전보경(2006)은 구성원의식을 공동의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정의하면서 귀속의식, 유대감,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참여의지, 정주성으로 설명하였다. 즉,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 구성원들과의 소속감, 자신의 욕구가 공동체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 서로 유사한 경험들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헌신과 믿음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 지역주민들 간의 구성원의식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지역주민으로서 갖는 소속감이 타 지역 주민과 구

별되는 감정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상호작용의식

McMillan & Chavis(1986)은 상호작용의식이란,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경험하는 것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상호나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서 한 개인의 상호작용의식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재정의되며, 다양한 상징에 대한 해석과 조절된 상호작용으로부터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상호영향의식은 사회변화, 자신에 대한 기대감, 구성원들이 주는 영향력,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김광복·남진(2005)은 일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상호영향의식은 지리적 영역·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의 연대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가치관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김찬동·서윤정(2012)도 상호영향의식이란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며 구성원들 간 혹은 조직체 내의 활동에 참여하는 밀접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내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의식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지역주민으로서 갖는 상호작용이 영향력과 권위교환 등과 같은 인식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3) 공익추구의식

공익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서는 차례와 질서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생활을 위해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는 일, 여러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애호하고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 공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McMillan & Chavis(1986)은 공익추구의식이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채워져야 할 개인적인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서열화하고 공동체에 보다 적절한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고동우(2020)는 공동체의식에 공익추구와 같은 친사회적 경향성과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그로 인해 발생한 긍정적인 호혜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Nowell & Boyd(2010)는 전통적 공동체의식의 개념과 측정방식에 사회적 규범 및 책임내용이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체의 규범성과 구성원들 간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 공동체의식의 개념을 공통의 규범이나 가치, 관심, 목표, 신념과 유대를 공유하는 공익추구를 위한 관계망이라고 설명하였다(고동우, 2020). 김대건(2011)은 공동체의 규범적 가치와 건강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기여 및 책임을 강조하였고, 김지영·이혜경(2020)도 규칙 준수 및 책임성을 공동체의식의 중요한 하위요소로 설명하였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내 지역주민들 간의 공익추구의식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정한 지역주민으로서 갖는 책임성과 규칙준수와 같은 활동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 공동체의식 영향요인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이론은 사회정체성이론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소속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획득하며, 집단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체성에서 자신들 존재의 근거를 찾는다고 설명한다(Tajfel & Turner, 1981). 여기서 사회정체성은 자신이 특정한 사회의 집단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인지적 측면)과 해당 집단이 지니는 가치(평가적 측면) 그리고 개인이 집단에 지니는 정서적 애착(감정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사회정체성이론이란, 공동체의식이 집단을 통해 개인이 형성한 이러한 사회정체성을 통해 발현된다는 이론이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3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천적 집단의 범주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단을 통해 형성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긍정적인 특성을 찾아 그 긍정적 평가를 개인 자신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이 소속된 여러 집단을 통해 본인이 속한 집단을 변화하려고 하거나 외부 집단을 탐색하기도 한다(유란화이태형, 2020).

이러한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로는 우선 이상수 김은정(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학습 즉 인지적 요인들과 사회적 요인들로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요인들과의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로는 김명숙 김민성(2007), 김정겸(2009), 김정겸·조혜령(2012) 등이 있으며, 사회적 요인을 설명하는 연구로는 김명숙(2007), 김상미·남진열(2011), 최형임·문영경(2013), 위유라·노충래(2014), 고국영 외

(2015) 등을 들 수 있다. 고국영 외(2015)는 교사의 사회정서역량이 높을 때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김상마·남진열(2011)은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지영·이혜경(2020)은 사회적 관계성과 공동체의식과의 긍정적 인과관계에 대해 밝히면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영향변인으로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강가영·장유미(2013)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자주 활용되었고, 지역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요인 중,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를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구성하고자 한다. 사회관계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 사람들과의 심리 내적인 특성을, 사회활동참여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위해 직접 참여하는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사회관계와 공동체의식과의 영향관계

사회관계란,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행동의 교환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일정한 인간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만족스럽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경험하면 건전한 인격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불만족스럽고 대립적인 사회관계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관계 유형은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친척 및 친지들과의 관계, 친구관계, 직장 및 조직에서의 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등 다양하다. 인간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관계를 통해 보다 풍족하고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해 나가며, 어떤 부류의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중요성을 연구한 허영주(2019)는 가족 내에서의 관계형성, 사회관계의 친밀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남순현(2015)과 Patton & Waring(1984), 민항기(2007), 윤정헌(2013)도 사람은 출생 후 최초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식을 획득하게 되며 점차 가정을 벗어나 학교나 지역 사회 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정계숙 박희경(2019)은 사회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의 긍정적 자원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명섭(2020)은 공동체의식에 구성원들과의 사회관계를 주요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미섭(2013), 김위정(2012), 염혜경(2016), 이소연(2016)은 구성원들과의 협력적이고 친밀한 사회관계는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게 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사회관계가 공동체인식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사회참여활동과 공동체의식의 영향관계

사회참여활동이란, 사회 내의 구성원과 행동을 교환함으로써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으로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체에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성수(2006)는 사회참여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나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사회참여활동에는 자원봉사활동, 시민운동활동, 마을활동, 다양한 조직변화활동 등이 속한다. 즉, 자신의 유익을 벗어난 사회 전반에 관한 활동이자, 자발성에 더하여 의무감과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은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며,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올바른 시민정신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갈등이나 혼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Comez & Gunderson(2003)은 봉사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배양시킨다고 하였다. 허영주(2019)는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박재숙(2010)은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원미순·박혜숙(2010)은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동체의식,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고관우·남진열(2011)도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킨다고 보고하였다. 김선숙·안재진(2012), 하주선(2012), 허성호·정태연(2013), 김혜진(2014), 문수경(2015), 전명숙 박선녀(2016)의 연구에서도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가치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공동체의식이 향상된다는 것을 밝혔다. 조운득·윤은경(2015)은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지역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노수희·정원철(2019)은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임정숙 김고은(2019)은 지역사회활동참여와 공동체의식과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다

고 하면서, 연대와 사회활동참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안정임·최진호(2020)는 지역사회나 국가 단위 차원에서의 정치참여나 사회참여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나 태도 혹은 의무나 권리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소속집단에 대한 개인 차원의 소속감과 집단을 향한 개인의 존중과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의되는 공동체의식과 이에 기초한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와 국가 범위에서 성숙하게 발전하는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참여활동은 공동체의식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설계

1)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S지역의 6개 동에 대해 각 동별로 100명씩을 인구분포비율에 따라 유의할당표집하여 총 60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이유는 S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이며, 6개동 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주민들과의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자료는 2019년 2개월(2월-3월)간, 선정된 설문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된 600부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과 설문지 배포 및 분석현황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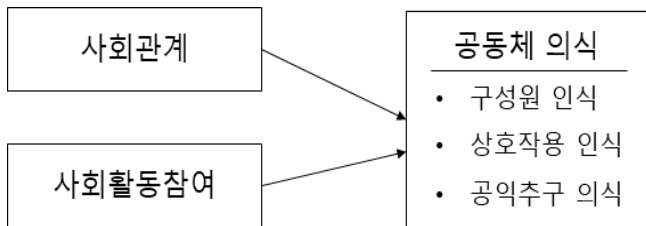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지역 및 설문지 배포·분석현황

배포기관	배포부수	분석부수	배포기관	배포부수	분석부수
A동	100	100	B동	100	100
C동	100	100	D동	100	100
E동	100	100	F동	100	100
			총계	600	600

2) 연구의 모형

본 논문은 연구가설을 ‘S지역주민들의 사회관계가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그림1]을 제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사회참여활동과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3)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서울시 S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종속변수는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으로 설정하였고,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사회관계와 사회참여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사용된 설문문항의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수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변수는 사회관계는 성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20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4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친인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소속집단과의 관계 등이다. Cronbach's α 값은 0.867로 높은 편이었다. 두 번째 독립변수인 사회참여활동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주민욕구조사(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기부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회적경제활동참여, 동호회 및 자조모임 등 단체활동 참여, 종교 및 정치활동 참여 등이다. Cronbach's α 값은 0.840으로 높은 편이었다.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은 강순화(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12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구성원의식의 내용은 지역거주 선호, 이웃 호감, 지역주민 유대감, 지속거주의지, 공동체 소속감 등 5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값은 0.743으로 적절한 편이었다. 또한 상호작용의식은 도움가능, 친목과 교제, 주민과의 잦은 대화, 이웃방문 등 4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값은 0.782로 적절한 편이었다. 공익추구의식은 지역사회 일을 우리 일이라는 인식, 이웃과 지역사회 일에 대한 우선순위, 지역발전 일에 대한 참여의사 등 3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값은 0.710으로 적절한 편이었다. 구체적인 측정변수의 내용 및 신뢰

도 수준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설문내용 구성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신뢰도
독립변수	사회관계	4	0.867
	사회활동참여	6	0.840
종속변수 (공동체의식)	구성원의식	5	0.743
	상호작용의식	4	0.782
	공익추구의식	3	0.710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4.0 버전을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파악을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해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관계, 사회참여활동과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분석 및 해석

1) 설문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연구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600명 중 여성이 304명(50.7%), 남성이 296

명(49.3%)으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S지역 연령별 인구비율에 따라 유의할당표집을 하여 '20대'는 111명(18.5%), '30대'는 106명(17.7%), '40대'는 143명(23.8%), '50대-64세'는 147명(25.5%), '65세 이상'은 93명(15.5%)으로 나타났다. S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11명(1.8%), '1년-5년 미만'이 230명(38.3%), '5년-10년 미만'이 79명(13.2%), '10년-15년 미만'은 75명(12.5%), '15년-20년 미만'이 41명(6.8%), '20년 이상'이 164명(27.3%)를 차지하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경제상태가 '보통이다'로 응답한 사람은 365명(60.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어렵다' 17.5%, '넉넉하다' 15.3%, '매우 어렵다'는 5.2%, '매우 넉넉하다'는 1.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주관적 경제상황과 비슷한 결과치라고 할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0)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여자	304	50.7	거주기간	1년 미만	11	1.8
					1년-5년	230	38.3
	남자	296	49.3		5년-10년	79	13.2
					10년-15년	75	12.5
					15년-20년	41	6.8
	총계	600	100		20년이상	164	27.3
					총계	600	100
연령	20세 미만	8	1.3	경제상황	매우어렵다	31	5.2
	20대	103	17.2		어렵다	105	17.5
	30대	106	17.7		보통이다	365	60.8
	40대	143	23.8		넉넉하다	92	15.3
	50-64세	147	25.5		매우넉넉하다	7	1.2
	65세 이상	93	15.5		무응답	0	0
	총계	600	100		총계	600	100

2)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다음의 <표 5>는 설문자들이 응답한 측정변수들의 평균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관계가 3.023, 사회활동참여가 3.005점, 구성원의식이 3.334점, 상호작용의식이 3.470점, 공익추구의식이 3.462로 나타났다. S 지역 주민들의 사회관계나 사회활동참여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상자의 다수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소통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변수들의 척도와 왜도값이 모두 각각 3미만, 10만으로 나타나고 있어(배병렬, 2017), 주요 변수분포가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사회관계	600	3.023	1.401	0.454	1.071
사회활동참여	600	3.005	1.495	0.283	0.604
구성원의식	600	3.334	0.731	-0.335	0.064
상호작용의식	600	3.470	0.717	-0.255	0.034
공익추구의식	600	3.462	0.787	-0.067	-0.127

3) 변수들의 상관관계

아래의 <표 6>은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모두 $p < 0.1$ 와 $p < 0.5$ 내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0.8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
사회관계		0.177**	0.153**	0.102*	0.123**
사회활동참여			0.109**	0.151**	0.137**
구성원의식				0.798**	0.732**
상호작용의식					0.645**
공익추구의식					

**p<0.1 *p<0.5

4)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우선, S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에 표는 <표 7>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분석의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34.1%이었으며, F값은 10.407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자기상관계수(Durbin-Watson)가 1.633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분산팽창계수(VIF)의 경우에도, 모두(1.006)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IF가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배병렬,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관계($\beta = .146$, $p < .001$)는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 강조한 Patton &

Waring(1984), 민황기(2007), 남순현(2015), 김위정(2012), 오미섭(2013), 윤정현(2013), 염혜경(2016), 이소연(2016), 허영주(2019), 정계숙 박희경(2019), 정명섭(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활동참여($\beta = .098, p < .05$)도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참여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활동참여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으로 강조한 Comez & Gunderson(2003), 박재숙(2010), 원미순 박혜숙(2010), 고관우 남진열(2011), 김선숙 안재진(2012), 하주선(2012), 허성호 정태연(2013), 김혜진(2014), 문수경(2015), 조윤득 윤은경(2015), 전명숙 박선녀(2016), 노수화 정원철(2019), 임정숙 김고은(2019), 허영주(2019), 안정임 최진호(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7〉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 공동체의식과의 영향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2
	B	표준오차	β					
사회관계	0.065	0.021	0.124	3.084***	0.000	10.406	0.000	0.341
사회활동참여	0.061	0.020	0.126	3.115**	0.002			

*** $p < .001$ ** $p < .01$ * $p < .05$

구체적으로 종속변수인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에 따른 독립변수와의 실질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성원의식 영향요인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인 구성원의식과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사

회활동참여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표는 <표 8>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의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33.2%이었으며, F값은 10.406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자기상관계수(Durbin-Watson)도는 1.757로 2에 근접하여 상호독립적임을 알 수 있었다. 분산팽창계수(VIF)의 경우에도, 모두 1.006으로 1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관계($\beta = .146, p < .001$)는 구성원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구성원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활동참여($\beta = .098, p < .05$)도 구성원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의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8>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 구성원의식과의 영향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2
	B	표준오차	β					
사회관계	0.075	0.021	0.146	3.609***	0.000	10.178	0.000	0.332
사회활동참여	0.047	0.019	0.098	2.423*	0.016			

*** $p < .001$ ** $p < .01$ * $p < .05$

(2) 상호작용의식 영향요인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인 상호작용의식과 독립변수인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분석표는 <표 9>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분석의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31.3%이었으며, F값은 9.565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자기상관계수(Durbin-Watson)는 1.588로 2에 근접하여 상호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계수(VIF)의 경우에도, 모두

1.006으로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독립변수인 사회관계($\beta=.091, p<.05$)는 상호작용의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상호작용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활동참여($\beta=.144, p<.001$)도
상호작용의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활동참
여 수준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의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9>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 상호작용의식과의 영향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²
	B	표준오차	β					
사회관계	0.057	0.025	0.091	2.250*	0.025	9.565	0.000	0.313
사회활동참여	0.087	0.024	0.144	3.567***	0.000			

***p<.001 **p<.01 *p<.05

(3) 공익추구의식 영향요인

마지막 공동체의식의 하위요인인 공익추구의식과 독립변수인 사회
관계, 사회활동참여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는 <표 10>로 나타났다. 이 분석의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16.4%
이었으며, F값은 5.816으로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자기상관계수(Durbin-Watson)는 1.785에 근접하여 상호독
립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의 경우에도 모두 1.006으로 1에 근
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독립변수인 사회관계($\beta=.121, p<.01$)는 공익추구의식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관계가 좋을수록 공익추구의
식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활동참여는 공익추구의
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사회관계, 사회활동참여와 공익추구의식과의 영향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2
	B	표준오차	β					
사회관계	0.068	0.023	0.121	2.967**	0.003	5.816	0.000	0.164
사회활동참여	0.015	0.021	0.028	0.679	0.497			

***p<.001 **p<.01 *p<.05

5. 결 론

1) 요약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S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등 독립변수와의 영향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의식을 구성원의식, 상호작용의식, 공익추구의식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소별로 독립변수와의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현장에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분석 결과, 사회관계 및 사회활동참여의 독립변수 모두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하위요소들과의 관계에서는 구성원의식과 상호작용의식에서는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참여가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고, 공익추구의식에서는 사회관계 만 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가족과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들과의 사회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 사회 조직이나 시민단체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건강한 가족관 향상 및 가족역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긍정적 자기의사표현프로그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훈련, 이웃마음담장허물기운동, 주민밥한끼같이하기, 안녕안부묻기 캠페인, 자주 안쓰는 물건 서로 빌려쓰기, 동네방네바자회 등의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며, 주민들 스스로가 삶의 변화를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활동참여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주민들이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긍정적 삶을 학습할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과거 자신의 특기와 경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매칭업을 마련하여 사회참여 활동의 연계와 이모작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진행된다면 더 만족스럽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봉사영역별로 주민들 스스로가 소규모 봉사단을 조직화하여 봉사수혜 대상자를 찾아 직접하는 기획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 공간 제공, 사례발표 및 수퍼비전 기회제공 등의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 대면접촉형 사회참여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활동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AI로봇 및 온라인맞춤형을 지향하는 사회적 관계망 향상 사회참여활동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체의식향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넘어 웰빙과 삶

의 만족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 학교, 조직,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세대, 지역, 계층별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힘의 원동력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축소하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설문대상을 서울시의 S지역 주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여건과 상황이 다양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일반화나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다중회귀적용상의 옵션이나 방법적용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통제변수 및 제3의 변수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지역사회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영역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본다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이나 단체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공동체의식 향상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3월 15일 접수, 5월 18일 심사완료, 5월 19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가영·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 10(1). 97-123.
- 강순화. 2016. "메가이벤트 개최지의 사회자본과 사회적 가치 공동체의식 및 협력의사 간의 영향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관우·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 13(4). 231-250.
- 고국영·김은정·이상수. 2015. "초등교사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 공동체의식, 학습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연구』 . 32(4). 229-239.
- 고동우. 2020. "코로나19의 제약을 견디는 사람들: 공동체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및 자기오락화 역량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소비자·광고』 . 21(3). 399-424.
- 고은정·이경환·안건혁. 2006.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보행환경의 변화가 커뮤니티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흥3동 담장허물기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 7(4). 77-87.
- 구지윤·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 23(8). 287-309.
- 권정미·박태영. 2014. "도농지역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51. 127-154.
-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 23(2). 211-232.
- 김광복·남진. 2005. "주택재개발아파트의 단지배치특성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의 커뮤니티의식 분석." 『국토계획』 . 40(7). 73-84.
- 김대건. 2011. "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형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 9(1). 67-97.
- 김명숙·김민성. 2007. "혼합형 수업에서 학급 공동체의식이 학생들의 성

- 취목표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학』. 21(4). 1071-1091.
- 김명숙. 2007. “혼합형 수업에서 학급 공동체의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8(4). 23-54.
- 김상미·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숙·안재진. 2012. “청소년봉사활동 참여유형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9(1). 85-107.
- 김선숙·안재진. 2016. “청소년 여가활동이 공동체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4). 71-92.
- 김수영·장수지·문경주. 2013. “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론적 논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행정학보』. 30(2). 157-180.
- 김정겸(2009).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공동체의식과 학습준비도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73-92.
- 김정겸·조혜령(2012). “사이버학습환경에서 학급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실재감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8). 3436-3443.
- 김지영·이혜경. 2020. “휴대전화 의존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273-279.
- 김지인·이호현. 2018.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글로벌 새마을정신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1). 143-164.
- 김찬동·서윤정.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현주·박현선·박희서. 2019. "A Longitudinal Stud on Adolescent's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romation』 . 24(6). 175-182.
- 김혜진.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 28. 195-214.
- 김혜진·홍혜영. 2018.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18(1). 31-43.
- 남순현. 2015. "청소년의 성격,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28(4). 1-32.
- 노수희·정원철. 2019.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의 자원봉사만족과 전공만족의 관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 8(2). 205-224.
- 문수경. 2015. "청소년 봉사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황기. 2007. "가족 공동체의식의 제고방안." 『동서철학연구』 . 43. 347-366.
- 박가나.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 17(4). 157-182.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14. 『지역주민육구조사 보고서』 . 서울:반포종합사회복지관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 서울:청람.
- 성동구청. 2018. 『제4기 성동구지역사회보장계획』 . 서울: 성동구청
- 성희자·전보경. 2006. "농촌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27. 149-170.
- 안정임·최진호. 2020. "디지털 시민성 역량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 57. 133-177.
- 염혜경. 2016.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이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섭. 2013.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미순·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17(3). 225-246.
- 유란희·이태형. 2020. “국가와 지역공동체의식은 사회적 포용을 확대시키는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54(2). 309-338.
- 유병래. 2015. “세대갈등과 문화생활: 시민성 구현과 관련하여.” 『철학·사상·문화』 . 19. 124-178.
- 윤덕환·채선애·송으뜸·김윤미. 2017. “2017 공동체의식 및 사회적 갈등 관련 인식 평가.” 『리서치보고서』 . 8. 1-17.
- 윤정현. 2013. “가족관광이 가족건강성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 9(3). 79-98.
- 위유라·노충래. 2014. “청소년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 16(2). 203-227.
- 이경자·윤천성. 2020.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참여자의 호의인간 정신과 노년기 활동만족도 관계에서 참여동기부여 매개효과 연구.” 『인문사회21』 . 11(2). 1665- 1677.
- 이남경·황일영·최영근·이용탁. 2020. “사회적 기업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기술경영』 . 5(2). 45-65.
- 이라영. 2009.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의식과 외부공간 구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수·이은정. 2018. “공감적 학교공동체 역량과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 30(3). 307-328.

- 이소연(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숙 김고은. 2019.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령집단 간 비교” 『인문사회21』 . 10(3). 1173-1786.
- 전명숙 박선녀. 2016.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16(8). 228-237.
- 정계숙 박희경. 2019. “예비특수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공동체의식 및 불안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 62(3). 1-30.
- 정명섭. 2020. “부모 학대방임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우 및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20(3). 106-115.
- 정성욱 장동현. 2020. “농업인의 공동체의식이 조직몰입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 26(1). 13-22.
- 정영교. 2009. “인간존재의 이중주: 개체성과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 17(1). 187-209.
- 조운득 윤은경. 2015. “독거노인의 우울, 불안감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 미치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 70. 223-244.
- 주동해 정원철. 2020.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 9(1). 277-298.
- 주성수(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 서울: 아르케
- 최영미.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암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45. 189-209.
- 하주선. 2012. “대학생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성호·정태연. 2013.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발과 사회성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성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9(2). 133-158.
- 허영주. 2019. "가족관계 친밀성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3). 429-452.

- Bess, K. D., Fisher, A. T., Sonn, d. d. and Bishop, B. J. 2002.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NY: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Dalton, J. H., Elias, M. J. and Wandersman, A. 2007. Community psychology: Linking individuals and community. Belmont: Thomson Wadsworth.
- Farrell, S., Aubry, t., and Coulombe, D. 2004., "Neighborhoods and Neighbors: Do they contribute to personal well-bing?."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1). 9-25..
- Gomez, R. and Gunderson, M. 2003. "Volunteer activity and the demands of work and family." Relations industrial. 58(4). 573-619.
- Hillery, G. A. 199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McMillan, D. H. and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Nowell, B. and Boyd, N. 2010. "Viewing Community as Responsibility as well as Resource: Deconstructing the theoretical roots of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 828-841.
- Patton, D. and Waring, E. M. 1984.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arital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psychic patients".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0(3). 201-206.
- Tajfel, H. & Turner, J. C. 1981.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Abstract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Community Consciousness
in the S Area Residents

*Koo, Hyeyoung**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which might affect community consciousness of the S area residents in an integrated way. The community consciousness was classified into member consciousness, interaction consciousness, public interest consciousness as to acquire precise understanding and find practical implication for developing community consciousness. To achieve this goal, 600 of the residents in the S area were surveyed for 2 month(Feb.-Mar., 2019) and 600 of their answers were analyzed based on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appeared that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community consciousness in S area residents. In detail,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member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 Professor, Social Welfare Division, Hanyang Cyber University

interaction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public interest consciousness of the S area residents.

On a basis of these results, guided and assisted in order to develop the community consciousness by increasing social relationships' program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Key words: Community Consciousness, Social Relationship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Member Consciousness,
Interaction Consciousness, Public Interest Consciousness